

■ 반갑습니다 - 성암사 응현 스님

어르신들에게 무조건 베풀어야 합니다

“전생에 내 부모 아닌 분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어르신들에게 베푸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암사 주지 응현스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효를 강조하며 부모공경과 어르신 사랑을 설교하고 있다.

스님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성암사 반경 50리 안에는 밥 굶는 어르신들이 없게 하겠다”는 소원을 세우고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스님의 뜻은 마침내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문현초등학교 인근에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을 열게 된 것. 매주 월·수·금요일마다 운영되는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하루 250명이 넘는다. 내가 먹지 못하는 음식은 남에게 내놓지 않는다는 스님의 의지 탓인지 음식 맛은 최상이라고 이용자들은 입을 모은다.

따뜻한 밥상이 문을 열기까지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우선 부지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1년에 1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운영비 역시 버거웠다. 주위의 굶지 않은 사신도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스님은 “밥 굶는 중생들에게는 엽불보다 밥을 쥐어 한다”는 신념을 세우고 묵묵히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7년간 성지곡 수



성암사 주지 응현스님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현1동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있다.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 운영 하루 250명 식사 제공 큰 보람

원지 등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한 경험을 살려 빠른 시간 내에 ‘따뜻한 밥상’이 지역 어르신들의 한 끼 걱정을 덜어주고 마음의 위안처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컸다고 스님은 얘기한다.

“모두 127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팀을 나눠 어르신들의 편안한 식사를 돕고 있습니다. 전원이 성암사 불교대학 졸업생들로 모범적인 급식소 운영을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또 성암사가 무료급식소 이외에도 목욕봉사와 미용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문현초등학교와 문현여고에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해마다 경로잔치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이 이와 같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열반에 들어간 양의 큰스님의 영향이 컸다. 또한 김태수 최고위원과 박승규 신도회장, 김상규 동창회장 등과 같은 신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스님은 인터뷰 말미에 사회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돈 있는 기업이나 사람의 사회 환원을 강조했다. 사회로부터 입은 은혜를 다시 사회로 돌려주는 것은 도리라는 것이다.

유영희 기자

애국지사 박정오 선생 별세

남구 유일한 독립유공자였던 박정오 선생이 지난날 27일 새벽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박정오 애국지사는 부산 초량 상업학교 3학년에서 재학 중 신진회 회로 집에서 독서회 활동을 통하여 뜻을 같이 해 온 차병근·김수성 등 다른 12명의 동지와 함께 비밀결사 순국단을 조직하고 부단장을 맡았다.

순국단은 독립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만주로 집단 망명할 계획

을 세웠으나 실행 직전인 1944년 8월 일경에 발각되어 실패하고 단원 모두가 피체되었다.

이로 인해 박정오 지사는 부산 형무소에서 1년 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했다.



순국당 사건 재조명 유지 받들 터

故 박정오 선생 장남 박경욱씨

애국지사故 박정오 선생의 장남 박경욱(58·대연5동)씨는 생전의 아버지를 ‘대쪽같은 선비’라고 기억했다. 특히 1남2녀의 자녀들에게 엄격했다고 얘기했다. 자칫 잘못이라도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불호령을 내렸고 틈나는 대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어린시절을 회상했다.

“대연5동 대연방 부근 땅자나 무집에 어린 시절 살았습니다.

항과 이주홍 선생도 저희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님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린 우리들에게 애국애족 사상을 심어 주셨어요. 성격도 활발하시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던 분입니다” 박경욱씨는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순국당 독립 운동에 바른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수인 시인 시비 제막

류수인 시인(대연3동)은 지난날 22일 자신의 묘고인 전복 익산시 용안초등학교에서 시비 제막식을 열었다.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비에는 류 시인의 작품 ‘가시 속에 피는 장미’ 등 2점의 작품이 새겨져 있다. 이와 함께 류 시인은 최근 자신의 8번째 시집 ‘자녀 풍경’ (도서출판 전광)을 출간했다.

시집에는 시인이 그동안 시집을 통해 발표한 작품과 신작 등 120여 편이 선보이고 있다. 주로 고향을 그리며 마음을 작품들로 서정성이 돋보인다는 문단의 평을 듣고 있다. 류수인 시인은 전복 익산 출신으로

로 지난 96년 월간 ‘한국시’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했다.

부산불교문인협회 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하고 가산문화회 회장을 지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산문인협회, 부산남구문인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창작열을 불태워온 그는 제9회 한국시문학 대상과 노산문학상, 부산여성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모란이 지는 밤’ 등 8권이 있다.



회원 자녀 대상 장학사업 구상

남구청년연합회 신대식 신임회장

제26대 (사)남구청년연합회 회장에 신대식(용호2동·46)씨가 선출돼 내달 19일 취임식을 갖는다. 신 회장은 “어려운 가운데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원확충과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청년회 재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년회 고구 업무 중 하나인 방범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데 힘쓰는 한편 회원들의 자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사업 중 하나로 회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꼽았다.

신 회장은 용호2동 청년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주민화합을 위한 땀을 아끼고 노력하며, 력사업 등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으로 지역의 어르신 122명에게 장수사 진을 찍어줘 당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김옥련 기자

유엔군전몰장병 희생 기억해야

유엔기념공원관리처 이광재 처장

“자유와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유엔군전몰장병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행사를 무사히 치러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유엔기념공원관리처 이광재 처장은 UN의 날과 부산을 향하여 추모 행사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냈다. 특히 염연방국가의 현충일인 지난 11월 11일 열린 국가보훈처 주관 ‘Turn Toward Busan(부산은 향하여)’ 추모행사를 도와 부산 남구에 위치한 유엔기념공원의 존재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켰다.

이 처장은 “2010년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을 시점으로 한국정부와 각 단체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사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하는 참배객들의 숫자도 연간 30만명에 이를 정도이며 이 중 10%에 해당하는 3만명이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013년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유엔기념공원에서는 해외 참전용사 방한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라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와 평화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처장은 “유엔군으로 참전해 전사한 4만여명의 유엔군전몰장병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며 “유엔군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없었을 것이며 6·25전쟁의 교훈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나부터 최선



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게 이 처장의 답변 요지다. 이 처장은 공원을 찾은 참배객들에게 당부의 말로 인테뷰를 마쳤다.

“유엔기념공원은 일반공원과 다른 추모의 장소라는 점을 인지해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공원과 관련한 지역축제 개최시 추모개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6회 오륙도문학상 수상

대상 옥치부 신인상 이성도

수필가 옥치부씨가 지난 13일 남구문인협회(회장 김달현) 주최로 열린 오륙도문학 제20호 출판기념회 및 문학상 시상식에서 제6회 오륙도문학상을 받았다.

옥치부 수필가의 수필집 ‘누님의 뒷밭’은 오랜 삶의 궤적에서 빛나는 글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고향단상 등 4부로 구성된 수상작품집 ‘누님의 뒷밭’에는 팔손이 넉은 노작가의 진솔한 삶의 흔적과 철학이 생생하게 들어 있어 읽는 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며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옥치부 수필가는 “문학이란 것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원이 있었다”며 “상을 받은



옥치부 수필가



이성도 시인

것을 계기로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밝혔다.

올해 오륙도신인상 수상작에는 이성도씨의 시 ‘그 여자’ 등이 선정돼 이날 상을 받았다.

김정화 기자

효(孝) 실천합시다

효문화지원본부 시민운동 벌여

(사) ‘효’ 문화지원본부(이사장 장혁표)는 지난 1일 오전 11시부터 경성대·부경대 지하철역에서 시민과 대학생,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효(孝)문화장려 시민운동을 벌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효행장려조례와 효결의문 낭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효문화장려 운동의 확산을 꾀했다.

1부 행사를 마친 후에는 지하철역에서 부경대 정문에서 이르는 구간을



효문화지원본부는 지난 1일 경성대·부경대 일원에서 효실천 운동을 벌였다.

걸으며 효실천, 효생활화를 알리는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사) ‘효’ 문화지원본부는 지난 2002년 창립했으며 그동안 효 문화 장려사업

과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학교 효교육사업 등을 꾸준히 벌여 왔다.

특히 효 사관학교를 운영하며 매년 2차례 사관생도를 모집해 지금까지 1,200명의 효지도자를 양성했다. 최근에는 효지도자들이 초·중·고등학교를 찾아가 1세대와 함께하는 효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부산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효문화화선에 앞장서고 있다.

‘효’ 사관학교 10기생 모집

- 대상 : 남·녀 지역 연령제한 없음
- 교육기간 : 2013년 4월 3일 ~ 5월 27일 (월·수)
- 장 소 : 서면 영광동서 4층 문화사랑방
- 교 육 비 : 무료
- 접수기간 : 2013년 3월 20일까지
- 연 락 처 : 337-7902, 010-3775-7902

부산남구문화원 제19기 문화강좌 프로그램

- 운영기간 : 2013년 1월 07일 (월) ~ 3월 29일 (금) = 공휴일 제외
- 수강료 (3개월) : 연회원 40,000원, 비회원 60,000원, 초등학교생 50,000원
- 연회원 가입은 언제나 가능하나 연회비 50,000을 납부해야 하며,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 적용
- 개강일 이후로는 환불 처리 되지 않습니다. (2013. 01. 07 이후)
- 문의전화 : 607-6359, 624-1333

강좌종류	강좌명	강사명	강의시간	정원	강의실
전통문화	한국문예(초급)	황지인	월. 수 13:30~14:30	25명	대강의실
	한국문예(중급)	황지인	월. 수 14:30~15:30	25명	대강의실
	다도예	박정희	화 10:30~12:00	15명	제1강의실
	가야금교실	안태숙	수 10:00~11:00	20명	대강의실
	민요판소리	안태숙	수 11:00~12:00	30명	대강의실
민요교실	기초한문서예	박재광	금 13:00~15:00	15명	제2강의실
	사군자·문인화	박재광	금 15:00~17:00	15명	제2강의실
	화소스피치	김달현	화 14:00~16:00	15명	제1강의실
	시조명리학	송옥련	수 15:00~16:30	15명	제3강의실
	천연비누와화장품만들기	박정희	목 10:00~12:00	15명	제2강의실
민요교실	시창교실	차한수	화 09:50~11:50	15명	제3강의실
	한국화(동양화)	구윤근	목 14:00~16:00	15명	제2강의실
	수채화(A반)	권용호	목 10:00~13:00	15명	제1강의실
	수채화(B반)	권용호	금 10:00~13:00	15명	제1강의실
	댄스스포츠(모데)	남우석	월. 목 09:30~10:20	25명	대강의실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고급)	남우석	월. 목 10:20~11:10	25명	대강의실
	댄스스포츠(중급)	남우석	월. 목 11:10~12:00	25명	대강의실
	댄스스포츠(초급)	남우석	월. 목 12:00~12:50	25명	대강의실
	사건교실(중급)	주철민	목 10:00~12:00	15명	제3강의실
	사건교실(초급)	주철민	금 10:00~12:00	15명	제3강의실
민요교실	태극권	이철환	화 11:00~12:00	25명	대강의실
	발리댄스	오재원	금 13:10~15:10	25명	대강의실
	통기타(초급)	황승환	화 13:30~15:30	15명	대강의실
	통기타(중급)	황승환	화 15:30~17:30	15명	대강의실
	통기타(고급)	황승환	화 15:30~17:30	15명	대강의실
클래식악기	클래식악기(이강)	안승연	월 20:00~21:00	30명	대강의실
	오카리나(초급)	이규숙	수 10:00~12:00	20명	제2강의실
	오카리나(중급)	이규숙	수 13:00~15:00	20명	제2강의실
	영어교실(생활영어)	김재현	화 12:00~13:00	20명	제3강의실
	영어교실(중급영어)	김재현	화 13:00~14:00	20명	제3강의실
영어교실	영어교실(영학영어)	김재현	화 14:00~15:00	20명	제3강의실
	영어교실(중급)	이은향	화 15:00~16:00	20명	제3강의실
	영어교실(초급)	이은향	화 16:00~17:00	20명	제3강의실
초등학생	초등영어수술(국사)	김재현	화 16:00~18:00	15명	제2강의실

웃음의 대중화 선언!

웃음·유머교실 회원모집 2개월 3만원 (수시모집)

조성영 웃음연구소 : 010-4567-2233 (부경대 대연캠퍼스 정문 앞 4층)

조성영 웃음연구소	조성영 웃음연구소	부산예술회관
「웃음·유머 회원모집」	「자극중 취득, 특별반」	「웃음·유머 회원모집」
매주(목) 오전 11~12시	매주(월) 오전 11~12시	매주(화) 오전 11~12시
매주(토) 오전 11~12시	매주(월) 저녁 7~8시	매주(수) 오전 11~12시
장소: 부경대학교 정문 앞 4층	장소: 부경대학교 정문 앞 4층	장소: 부산예술회관 4층
■ 선착순 100명 ■	■ 선착순 100명 ■	■ 선착순 200명 ■
특별수강료 2개월: 3만원	특별수강료 3개월: 9만원	특별수강료 2개월: 3만원

- 한국웃음치료 연구협회 회장
- 2011년 웃음·유머 명장사 선정
- 마더즈(유망임전문)병원 웃음건강 문화센터 원장
- TBN교통방송 「웃어요! 웃어봐요」 생방송 출연
- 웃음치료전문가 1급, 유머방법지도사 1급 자격증 취득가능
- 2011년 561회 명강의에 빛나는 웃음박사 조성영 직접 강의

아름다운 헤어. 설화수 주부사원 모집

재미있게 같이 일해요!!!!

- 급여와 의료비, 경조사, 교육비 등 지원
- 육아 보조금 지원
- 10시 출근, 일·공휴일 휴무
- 기타 다양한 지원혜택

헤어.설화수

판매 · 상담

☎ 627-2225

친절상담 → 최경숙 부장

주.야 직통상담 : 011-579-1122

아름다운 헤어 **남부오름지점 T.627-2225**

윌리스 병원

중풍·치매·파킨슨병 두통·어지럼·이명클리닉 개소

신경과 / 내과 / 안과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한방과

남구청 입구, 못골전철역 도보 2분 **요양병동 운영**

Tel. 638-7575 www.willishospital.co.kr

단전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르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10:30~11:50
오후 06:40~08:0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